

광주군

화관무

거북놀이

무감산 도당굿

해동화(海冬火) 놀이



화 관 무

1. 전승지

광주군 광주읍 일원

2. 유래 및 해설

조선조 궁중무용의 하나인 춘행무가 변형하여 그 규모와 화려함을 극대화시킨 춤으로

서 병자호란 당시 인조께서 남한산성에 피난시 행하여진 춤이라는 속설이 있다. 경기도 일원에서 많이 추어지는 춤으로, 고전무용의 대표적인 춤이다. 한국적인 우아한 귀태를 표출하려고 구중궁궐 깊숙히 그 수려함을 자랑했다는 내인들의 청아하고 소사한 자태를 무용화한 작품으로, 1943년 궁중무로 초연되면서 화관무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어지는 무용이다.





3. 구성 및 내용

왕이 시녀와 함께 연회장에 참석하면 왕의 만수무강과 국태민안을 비는 학춤이 추어지고 이어서 많은 무희들이 나라님의 선정으로 온 누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연회를 자축하는 뜻으로 화관무를 추어 춤의 극치를 이룬다.

거북놀이

1. 전승지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2. 유래 및 해설

거북승배의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거북놀이는 경기도 광주군을 비롯한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연희된 것으로 보인다.

거북놀이는 신라시대 때부터 발생하여 전래되었다고 하는데 민속의 기원이나 유래는 정확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구전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거북이를 위함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막고 한 고장에 살아가는 무리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3. 구성 및 줄거리

1) 길놀이

거북놀이의 첫 과정으로 길군악 가락에 맞춰 연희자 일행이 자연스러운 춤사위로 흥을 돋으며 마을로 행진한다.

2) 장승굿

길군악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 앞까지 연희자 일행이 도착하면 장승굿이 시작된다.

3) 우물굿

마을 공동우물에서 펼쳐지는 굿

4) 마을판굿



마을의 넓은 공터에서 한바탕 놀이마당과 촌극을 펼치며 신명을 돋운다.

5) 문 굿

장쇠이 문굿풀이와 함께 연희자 일행이 춤을 추며 문으로 들어간다.

6) 터जू굿

거북놀이 일대가 터जू가리 앞에서 농악을 치다가 연희대원 일동이 땅을 밟는 곳

7) 조왕굿

부엌에서 행하는 굿

8) 대청굿

대청 대들보위의 '업' 이라고 부르는 큰 구렁이에게 올리는 굿

9) 마당놀이

거북놀이는 8월 한가위날 밤에 휘영청한 달빛 아래서 흥겹게 연희되는 세시풍속의 민속놀이이다. 이 곳은 경기지방의 무속이 지닌 곳의 방식과 농악이 한데 어우러진 집단 놀이로서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 및 한해의 풍년을 비는 성격을 지닌다. 이 놀이를 통해 거뒀던 금전과 곡식은 마을의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

거북놀이는 먼저 길놀이부터 시작된다. 동네북판에서 길놀이를 출발하여 장승이 세워져 있는 동네 입구까지 가서 장승굿이 벌어지는데 이때 상쇠는 고사담을 한다. 장승굿을 마친 연희대는 동네 공동우물로 가서 한해동안 물이 철철 넘쳐흐르기를 기원하는 우물굿을 하고 다시 마을의 넓은 터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촌극을 펼치며 신명을 돋운다. 이와같은

마을 판굿은 거북놀이의 중간 절정을 이루며, 판굿이 끝나면 집집마다 돌면서 집안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비는 굿을 행한다. “들어갑시다.” 하는 문굿풀이에 이어 거북이를 앞세운 연희자 일행이 춤을 추며 문안으로 들어가면 주인이 나와 맞이하고 연희자들은 그집 터जू가리 앞에서 농악을 치다가 “누루세 누르세 터जू지신 누르세”를 외치며 땅을 꼭꼭 밟아준다. 이어서 부엌으로 들어간 연희대는 “천석 거북 들어간다. 만석거북 들어간다”를 반복하여 풍요를 빌고 조왕굿을 마친뒤, 거북놀이패는 대청으로 나와서 대청굿을 하는데 이때는 집주인이 고사상을 준비한다.

옛날부터 대청의 대들보 위에는 ‘업’ 이라고 부르는 큰 구렁이가 있어 그 집을 수호한다고 믿어, 이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풍요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대청굿은 거북놀이 전 과정에서 가장 의식성이 짙은 대목이다.

이 모든 놀이가 끝나면 풍요함 속에 한가위를 맞이하는 즐거움과 안도감이 한데 어울려 여러 사람이 서로 팔과 다리를 맞추어 마음껏 뛰고 즐기는 마당놀이로 거북놀이는 막을 내린다.

4. 놀이기구 해설

1) 거북

멧방석을 지게 위에 얹고 그 멧방석에 수수잎을 꽃아서 거북의 몸체를 만들고, 짚을 감아 머리를 대신하고 싸리비나 수수비로 꼬리를 삼아 그 안에 2~6명이 들어간다.

2) 농악

악기 및 각종 깃발

3) 기타 복색

무갑산 도당굿

1. 전승지

광주군 초월면 무갑리

2. 유래 및 해설

광주군 무갑산 도당굿은 팔당상류지역의 해발 578미터 무갑산 밑에 위치한 일명 무래

비 마을에서 수백년 동안 전해져오던 민속놀이이다. 마을을 지켜주는 무갑산 신인 할아버지 산신과 할머니 산신을 위한 당을 마련하고 격년제로 음력 2월에 길일을 택하여 굿을 하고 제를 올려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 무갑산 산신의 보살핌으로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토속신앙의 성격이 강한 민속놀이이다.

무갑산 도당굿은 해방 이후에는 간소화되



어 고창터에서의 대동굿은 하지 않고 산신제만 올려지고 있다. 이 마을 노인들과 그당시 대동굿의 주역을 맡았던 어름산이 (줄꾼) 조송자(경기유형9호) 씨의 고증에 의하면, 무갑산 대동굿은 당주집의 안택굿(채수굿)을 시작으로 3일 밤낮 동안 굿판과 놀이판으로 이어져, 인근 마을 구경꾼은 물론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소리꾼과 춤꾼, 악대(삼현육각)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이곳은 일대 장사진을 이루었다 한다.

무갑산 도당굿은 무래비 마을 주민들의 순수민속놀이로서, 마을의 노인들과 당시 도당굿에 직접 참여한 조송자씨의 고증에 따라 당주집의 안택굿과 할아버지당기와 할머니당기를 앞세워 만신과 막대에 의해 치러지는 할머니 당굿과 고창터에 모여 실시되던 대동굿 일부를 대동굿의 주역이었던 조송자씨를 통하여 재현하고자한 것이다.

3. 구성 및 줄거리

본부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창 터 • 할 머 니 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주 집 • 할 아 버 지 당 |
|--|--|

1) 입장

당기표시기 - 농악대- 당주, 하주, 축관, 집사-만신, 칼잡이-줄꾼-제물운반조

2) 당주집앞

- 굿하는조 : 당기, 당주, 하주, 축관, 집사,

만신, 탈잡이, 제물 운반조,삼현육각은 당주집으로 향한다.

- 준비조 : 중설치조, 줄꾼, 농악대는 고창터로 간다.
- 표시기 : 당주집기, 할아버지당기, 할머니당기, 고창터기는 제위치로 간다.

3) 안택굿

제물을 차리고 당주에 의한 제의식(축관) 후만신은 악사에 맞추어 한판굿을 한다.

4) 할아버지 당굿

당기를 앞세워 칼잡이의 놀음에 이어지며 만신, 당주, 하주, 제물이 할머니당을 거쳐 제의식(축관) 후 만신은 악사에 맞추어 한판굿을 한다.

5) 할머니당굿

당기를 앞세워 칼잡이의 놀음이 이어지며 만신, 당주, 하주, 악사, 제물이 도착되며 제의식(축관) 후 만신은 악사에 맞추어 한판굿을 한다.

해동화(海冬火) 놀이

1. 전승지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2. 유래 및 해설

광지원리는 서울 방면과 남한산성길의 교차로에 있는 약 90세대의 동리로서, 부락의 주위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광지원은 원래 예전의 통신방법으로 이용되었던

남산역(南山驛)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황교원(黃橋院)이 있어 서울에서 광진교를 건너 덕풍역을 거쳐서 경안, 이천, 여주, 충주, 청주 방향으로 남하하던 관리나 역마가 쉬던 곳이다.

조선시대 여주 영릉에 가시던 임금이 이곳에서 쉬다가 동리의 가운데 있는 물이 하도 맑아서 햇빛에 반사되어 빛을 발하자 광지원이라 칭했다고 하는 유래가 깊은 부락으로서 이 곳의 주민들은 이 원(院)의 터를 원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동리에는 옛부터 정월



상원일을 맞이하여 부락내에서 달맞이 의식이 벌어지는데 그 의식의 명칭을 동리의 화를 풀어 버린다고 하여 해동화(海冬火) 놀이라고도 하고, 정월 상원일의 의식이 대개 농작에 관계되는 것으로 동리의 안녕이나 풍농을 위해서 겨우내 얼었던 것을 녹인다고 하여 해동화(海冬火) 놀이라고도 한다. 이 달집 형태의 나뭇단을 '해동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더우기 나뭇단을 사용한 불이기에 해동화(海冬火)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정월 대보름은 그 해의 풍작에 관한 풍흉을 미리 점치는 의식이 많이 나타나며 겨우내 얼었던 땅에서 실질적인 농작의 준비가 이날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 높게 쌓은 나뭇단에 불을 붙여 겨울동안 얼었던 땅을 녹이고 추위를 물리친다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서 이 불은 자연히 정화의 뜻이 있어, 재난의 방지가 되어 마을의 안녕이 뒤따를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동해는 그 쌓아놓은 나뭇단의 높이에 전에는 20여 미터나 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7~10여 미터에 달한다.

동리에 전해지는 구전(口傳)에는 이 해동화 놀이의 유래는 약 200여년전에 이 동리에 마마나 장티푸스 등의 질병이 돌아 온 동리가 병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강표(姜杓)라는 노인의 꿈에 신이 나타나 각 집마다 나뭇단을 모아서 그것을 엮어 섶을 만들고 그것에 불을 놓고 제사를 올리면 병이 치유된다고 하여, 그때부터 매년 정월 보름날 밤에 이 의식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각지역에서 나타나는 민속의 유래는 정확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으며, 이 해동화 놀이를 보더라도 짚을 사용하지 않고 나뭇단을 사용하는 특이한 점이 있으나 이 나뭇단을 사용한 부락은 같은 광주군 내의 학동리에서

도 나타난다. 이 지역의 공통적인 점으로 산이 많고 농지가 적기 때문에 나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전해지는 유래가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각 지역에서 어느 시기엔가 필요에 의해 창출된 설화로 보인다. 따라서 달맞이의 일반적인 형태가 가정마다 벗짚을 한단씩 건어서 달집을 짓기 때문에 짚을 사용한 달집이나 나뭇단을 사용한 해동화 놀이나 공통된 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해동화 놀이는 풍농의 기원과 동리의 안녕, 가내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체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원성 민속으로, 무속적(巫俗的) 사고에서 창출된 특이한 형태의 민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동리에서는 해동화 놀이가 벌어지기 전에 동리의 노인 중에서 육갑(六甲)을 따져 길인을 지명하여 제사를 주관할 제주를 선출하는데, 제주는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문밖 출입을 금하며 며칠 전부터 식수에 목욕재계하고 부정을 멀리해야 한다. 또한 동리에 초상이 나가거나 출산이 되면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은 전부 청결한 가운데 제를 올려야 된다는 강한 무속신앙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광지원의 해동화 놀이는 200여년을 이어 왔으며, 만인 이 의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동리에 불상사가 생기고 흉년이 든다고 하여 일제시에는 등화관제소의 허락을 받고 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3. 구성 및 줄거리

1) 해동화 제작

정월 보름이 가까워지면 동리의 각 가정마다 나뭇단을 한단씩 건어 그것으로 해동해를

만든다. 동해는 마을의 중앙 공지에 세우며 높이는 약7m정도로 동해가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을 세우고 새끼줄로 둘레를 여러번 감는다.

2) 달맞이 신호

광지원은 주위가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달이 떠오르는 것을 동리에서 보게 되려면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산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가 달이 떠오르면 햇불을 흔들어 신호해 준다.

3) 달집 태우기와 제사

신호를 받으면 해동에 올라가 윗부분에 불을 붙이며 이 달집 앞에 제상을 차리고 제주가 삼배(三杯)를 드린 후에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한다.

4) 지신밟기

제주가 술잔을 올리고 나면 동리의 농악대가 삼채장단을 치면서 햇불의 주위를 돌다가 동리의 집집을 다니며 가내의 안녕태평과 초복수액을 기원해주는 지신밟기(이곳에서는 고산밟기라 한다)를 한다.



순미

5대범은정신회
동에우리
참이

광주